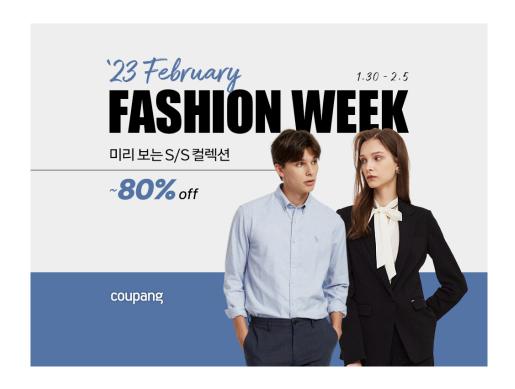
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, 미리 만나는 봄 '2월 패션위크' 열어 봄 패션 최대 80% 할인

2023. 1. 30.



- 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겨울 아이템부터 미리 만나보는 봄 패션 아이템까지 다양하게 준비
- 인기 스포츠 브랜드 및 캐주얼웨어 브랜드 다수 참여

2023. 1. 30. 서울 - 쿠팡이 S/S '2월 패션위크'에서 시즌 아이템을 선보인다.

오는 2월 5일까지 진행하는 '2월 패션위크'는 미리 보는 봄 시즌을 테마로 패션 상품을 최대 80% 할인한다. 패션위크는 쿠팡이 매달 첫 주에 진행하는 월간 이벤트로 매달 새로운 테마로 최신 패션 트렌드가 반영된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.

이번 패션위크는 단순히 봄 패션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상품을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. 여성 의류, 남성의류, 슈즈, 가방/ACC, 키즈 의류/잡화까지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할인 상품도 구성했다.

또 나이키, 아디다스, 푸마 등 스포츠 브랜드부터 타미힐피거, 헤지스, 닥스 등 캐주얼웨어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참여한다

같은 기간 쿠팡 패션에선 로라로라, 나인, 키르시 브랜드가 참여하는 '여성 캐주얼웨어 브랜드위크'를 진행한다. 베네통 키즈에서는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의류, 실내화, 책가방 등을 최대 50% 할인한다.

쿠팡 관계자는 "이번 패션위크는 다가오는 봄을 앞두고 설렌 마음으로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트렌디한 상품들로 다양하게 구성했다"며 "계속해서 시즌에 맞는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